http://dx.doi.org/10.15686/FKL.47.0.13

혼인 ‘첫날밤’에 관한 구술 서사와 젠더 규범*

김시연**

목차

1. 서론
2. ‘첫날밤’의 성적 결합에 관한 구술 서사
   2.1. “첫날밤에 신부 살가죽 벗겨 죽인 신랑”의 서사와 전승
   2.2. “첫날밤에 소박맞은 세 자매”의 서사와 전승
   2.3. “첫날밤에 신랑 재촉한 신부”의 서사와 전승
   2.4. ‘첫날밤’ 경험에 관한 구술 서사와 전승
3. 혼인 ‘첫날밤’의 성적 결합에 관한 구술 서사의 담론 효과
   3.1. ‘첫날밤’ 성적 결합의 젠더 규범과 지식 전승의 체계
   3.2. ‘첫날밤’ 성적 결합 관련 구술 서사의 담론 전략
4. ‘첫날밤’ 젠더 규범의 효과와 균열
   4.1. ‘첫날밤’ 젠더 규범의 수행적 효과
   4.2. ‘첫날밤’ 젠더 규범의 균열
5. 결론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첫날밤’을 주제로 하여 구술 서사의 젠더 규범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분석한다. 이때 혼인 ‘첫날밤’은 말 그대로 혼인의례를 행한 날 밤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랑과 신부의 첫 성적 결합[1]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이다. 행위의 주체가 ‘신랑’과 ‘신부’로

* 본고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혼인 ‘첫날밤’에 관한 구술 서사와 젠더 규범』(김시연, 2019)을 요약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이 글에서 말하는 ‘성적 결합’은 결혼 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 한 쌍이 재생산을

설정된다는 점에서 '첫날밤'이 곧 '첫 경험'인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가 '부부관계'와 동의어로 취급되는 세계에서 '첫날밤'은 사실상 공식적인 '첫 경험'에 해당한다.[2] 이 '첫날밤'의 섹스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대전제로 하는 혼인 관계의 자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심할 바 없이 이성애에 기반을 둔 이원적 성별 구분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이때 혼인의례의 당사자인 한 쌍의 '남성'과 '여성'에게 혼례의 각 절차는 그들이 공동체에서 승인하는 어른이자 부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입사적 과정에 해당한다.[3] 그 가운데 '첫날밤' 의례는 그들이 '신랑'과 '신부'로서 수행하는 상징적인 첫 섹스로서, 섹스가 공공연히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와 독점적인 섹스를 하는(혹은 해야만 하는) 삶으로 진입하는 길목이자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행위 그 자체, 혹은 행위를 통한 만족감이나 관계의 증진은 '첫날밤' 섹스의 관심사가 아니며, 성적 결합, 즉 삽입과 분출로 이어지는 '삽입 섹스'의 완결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과제로 주어진다. 이것의 성공적인 수행은 곧 '신랑'과 '신부'의 규범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증명으로 이어지며, 따라서 그들의 규범적인 젠더 정체성을 의례 공동체로부터 승인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가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첫날밤' 경험은, 나아가 그로부터 증명되는 누군가의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는 공공연한 담론의 대상이다.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경험들은 온전히 개인적이거나 내밀한 것이기보다는, 같은 젠더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큰 틀에서 어떤 경험의 분

목적으로 행하는 생식 행위로서, 남성 성기의 질내 삽입과 정액 분출로 이어지는 '삽입 섹스'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다.

2) 이와 같은 전제는 오늘날에는 낡은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여전히 혼인 관계에서의 '섹스'는 공공연하고도 당연한 것이고, 혼인 외의 관계에서의 섹스는 아주 부정되지는 않으나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했으리라/하고 있으리라'고 이야기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다.

3) 김영희·김시연, 「'첫날밤'의 의례적 상징성과 '남성성' 승인의 불안 – 「첫날밤에 간 부(姦夫) 잡은 남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66권, 비교민속학회, 2018 참조.

기점들을 공유하는 공통의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엇비슷한 삶의 궤적을 거쳐왔기 때문이기보다는, 어떤 사건들을 누군가의 젠더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장면으로 배치하는 규범적 담론의 틀이 경험의 서사적 재구성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경험은 그가 가진 젠더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서사에서 핵심적인 사건들로 간추려져 선택적으로 재편되어 서사화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은 대수롭지 않은 차이들이 존재할지언정 큰 틀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이 두드러지는 연행 공동체에서 특정 젠더 정체성에 해당하는 행위 규범은 '자연'의 위치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첫날밤'에 관한 구술 서사들을 매개로 하여, 젠더 규범의 '정상성'을 구성하는 내용과 그것이 담론화되는 방식, 그리고 동시에 그 한계와 균열점이 노출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첫날밤'이 갖는 상징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구술 서사들이 어떤 한계점을 어떻게 봉합하고 있는지, 따라서 어떻게 젠더 규범을 떠받치는 동시에 흔드는 담론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갈 것이다.

2. '첫날밤'의 성적 결합에 관한 구술 서사

본 장에서는 혼인 첫날밤에 관한 구술 서사, 그 중에서도 '첫날밤'이 언제나 내포하는 '성적 결합'이라는 사건에 관한 구술 서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첫날밤', 특히 성적 결합을 소재로 하는 구술 서사의 서사적 특징과 의미 지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 "첫날밤'에 신부 살가죽 벗겨 죽인 신랑'의 서사와 전승

'첫날밤에 신부 살가죽 벗겨 죽인 신랑'에서는 '첫날밤'의 적절한 수행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정서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정서는 어린 신랑과

신부가 성적 결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초심자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신랑에 대한 괴물화된 묘사와 결말부의 파국을 거치며 증폭된다. ‘신방 지키기’ 민속의 유래담이라는 형태는 이 ‘첫날밤’의 불안이 비단 신랑과 신부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주위 모든 사람의 것임을 시사한다.

이야기가 채록·보고된 각편 수가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192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전승 연원을 지니고 있다. 채록된 지역 역시 평안북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걸쳐 있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첫날밤에 신부 살가죽 벗겨 죽인 신랑’의 각편별 서사화 경향을 공통된 서사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

단락 번호	서사단락별 내용 정리
1	장가가는 어린 아들에게 어머니가 ‘첫날밤에는 신부를 벗기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2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의 옷을 벗긴 뒤 칼로 살가죽도 벗겼다.
3	신부가 아프다고 소리치자, 건넛방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첫날밤은 원래 아픈 것이니 참으라고 말했다.
4	다음 날 아침 신방을 들여다 봤더니 신부가 살가죽이 벗겨진 채로 죽어 있었다.
5	그 뒤로 신방을 엿보는 풍습이 생겼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사건의 골자는 간단히 “첫날밤에 신부는 벗기는 것’이라고 들은 신랑이 첫날밤에 신부의 옷을 벗기고 칼로 살가죽까지 벗겼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강렬한 핵심 사건은 연행자

4) 서사의 변이와 연행, 전승 현황의 세부사항을 정리한 표는 지면의 한계로 싣지 않았다. 이어지는 다른 작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 다룬 구전이야기 작품은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1989.)와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12, 평민사, 1987~1990.)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 채록·보고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다. 참조한 자료집 목록과 각편 수록 상황 역시 원문의 해당 표에 기록하였다.

들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떠올려 연행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사는 인물들의 대사와 경과 설명 위주로 빠르게 전개되다가 잔혹한 신방 모습을 시각화하여 선명히 묘사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이때 서사의 무게중심은 사건의 원인을 해명하거나 인물들의 행위 동기를 규명하기보다는 결말 장면을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부각하여 사건의 잔혹성을 강조하는 것에 놓여있다. 앞서 간략한 행동과 대사 위주로 빠르게 전개되는 서사는 서사단락 4의 파국을 설명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2.2. "첫날밤'에 소박맞은 세 자매'의 서사와 전승

'첫날밤에 소박맞은 세 자매' 역시 '첫날밤'의 성적 결합에 대해 무지한 신부가 등장하는데, 이때 이들의 서투름은 완수에 대한 불안보다는 어리숙함에 대한 조롱의 맥락에서 다뤄진다. 서사는 '첫날밤'에 서툰 행동을 하고 소박맞는 신부들을 차례로 웃음거리로 삼는 것에 치중하는데, 이를 통해 신부들의 무지함은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이해되고 '첫날밤' 성적 결합에 서툰 신부는 '비정상'의 범주에 놓인다.

단락 번호	서사단락별 내용 정리
1	딸 셋을 둔 집이 있었다.
2	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첫날밤에 신랑이 옷을 벗기려 해도 벗지 않으려 버티다가 소박을 맞았다.
3	둘째 딸은 언니가 옷을 벗지 않아 소박맞았으므로 옷을 다 벗고 신방에 들어갔다가 소박을 맞았다.
4	막내 딸은 언니들이 옷을 벗지 않아도, 벗어도 소박을 맞았으므로 신랑에게 옷을 벗을지 벗지 말지 물어봤다가 소박을 맞았다.

이야기는 '첫날밤' 신방에서 신부가 어떤 행위를 하여 신랑이 소박을 준다는 동일한 구조를 세 차례 반복하는 것으로 간단히 구성되고, 그 외

의 다른 서사적 요소가 개입하는 경우가 적다. 이때 첫째의 행위가 둘째에게, 첫째와 둘째의 행위가 막내에게 간접적 경험으로 누적되어 반면교사처럼 반영되지만, 결국 셋이 모두 '첫날밤'의 신부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소박을 맞게 된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이 이야기에서 '첫날밤'의 실패는 '소박'과 동의어로, 오로지 신부의 것이다. 신랑에게는 애당초 '입사 실패'로 의미화되지 않거나, 이후에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와 훌륭하게 만회하는 과거의 시련으로 위치한다. 반면에 신부의 경우 서사 내내 웃음거리가 된 후 소박당해 퇴장할 뿐인데, 신부가 처한 '소박'이라는 상황의 무게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저 신부들은 소박당하기 위해 등장하여 차례로 웃음거리가 되고 차례로 소박당하여 퇴장한다.

2.3. "첫날밤"에 신랑 재촉한 신부"의 서사와 전승

'첫날밤에 신랑 재촉한 신부'는 '첫날밤' 성적 결합을 소재로 한 성적 농담으로, 신랑을 재촉하여 성적 결합을 하고 그 쾌락을 표현하는 신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단락 번호	서사단락별 내용 정리
1	혼인 첫날밤에 신랑과 신부가 성교를 하지 않았다.
2	신부가 신랑을 재촉했다.
3	신랑과 신부가 성교하여 신부가 좋아했다.

각편별로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지만, '첫날밤에 신랑 재촉한 신부' 유형 이야기의 공통점은 '첫날밤'의 성적 결합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 상황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그것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신부의 재촉이며, 이를 통해 성적 결합을 다시금 시도하여 지연된 성적 결합을 완수함으로써 문제 상황은 해

소된다. 서사단락 1, 2, 3은 각각 문제 상황의 제시, 해결 과정, 문제 상황 해소라는 서사적 구조에 부합한다.

이 이야기에서 '첫날밤'은 이전까지 일깨워지지 않았던 섹슈얼리티의 각성과 같은 사건으로 의미화되는데, 이때의 성적 결합은 신부의 '자발적' 요구에 신랑이 호응하여 완성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신부, 즉 '여성'의 성욕과 쾌락만이 특히 강조되며 '조르는' '여성'과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남성'이라는 불균형적 관계 구도를 시사한다.

위 서사에서 '첫날밤'은 첫 성교, 특히 질내 삽입 성교와 동치된다. 그것이 완수되지 않으면 '첫날밤'의 완성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완성도 지연되는 것이다. 신랑과 신부의 '미숙함'은 오로지 그들이 질내 삽입 성교를 해낼 신체적·정신적 준비가 덜 되었다는 판단으로 규정되는데, 따라서 다른 모든 형태의 욕망이나 성교는 '첫날밤'의 '진정한' 성적 결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2.4. '첫날밤' 경험에 관한 구술 서사와 전승

'첫날밤' 경험에 관한 구술 서사로는 필자가 조사자로서 현지조사에 참가하여 채록한 자료들과 이미 채록·보고된 구술 서사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행자들은 1920년대와 1940년대 사이에 출생한 '여성' 노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나고 자라 여태까지 살아오며 식민지배와 전쟁, 산업화를 거쳐 현재는 70~80대의 노년에 이른 세대이다. 연행자들 가운데 결혼 경험이 없는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들은 늦어도 1950년대에 결혼하여 친정에서 '대례'를 하고 '첫날밤'을 치른 뒤 3일 뒤나 해를 묵혀 시댁으로 가는 형태의 전통적 혼례 형태를 경험했다.[5]

5) 1950년대 이전에 결혼한 사람 40명을 대상으로 한 '첫날밤' 경험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들은 5명을 제외하고 '신식 혼례'가 보편화되기 이전의 '구식 혼례'를 치렀다. (박부진, 「첫날밤과 신혼여행의 문화분석」, 『인문과학연구논총』 제25권,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223쪽.)

‘첫날밤’과 그 주변부의 섹슈얼리티 경험이라는 화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일정한 서사적 패턴을 보인 대목들을 간추려, ‘첫날밤’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서사단락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락 번호	서사단락별 내용 정리
1	어릴 적에는 집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와 말도 섞지 못했다.
2	월경에 관해서도 배운 적이 없고, 피가 나온 후에야 알게 되었다.
3	자신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시집을 가게 되었고, 시집 오기가 싫었다.
4	시집을 가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5	첫날밤에 신랑 얼굴을 처음 보았다.
6	첫날밤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신랑이 하는 대로 그저 가만히 있었다.
7	달려드는 신랑이 무서웠다.
8	신랑이 좋은 줄도 몰랐다.
9	첫날밤을 치르고도 신랑 보기가 부끄러워서 일부러 피했다.
10	시집와서 일만 하느라 신랑이나 아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11	시집살이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지난 일이다.
12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예전 같지 않다.

위 ‘첫날밤’ 경험에 관한 구술에서는 노년 ‘여성’들의 섹슈얼리티 경험과 그 속에서 ‘첫날밤’이 갖는 의미가 드러나는데, 이들의 구술 속에서 섹슈얼리티 경험은 노년에 이른 지금과는 무관한 과거 젊은 시절의 일로서, 자신에게는 배움의 기회도 선택의 여지도 주어지지 않았던 고난과 같이 그려진다. 같은 맥락에서 ‘첫날밤’과 성적 결합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로, 자신의 무지한 상태와 낯선 상황에서의 당혹감과 두려움이 크게 묘사되는 경험으로 나타난다.

3. 혼인 ‘첫날밤’의 성적 결합에 관한 구술 서사의 담론 효과

제3장에서는 ‘첫날밤’ 성적 결합에 관한 젠더 규범의 내용과 구술서사

에서 '첫날밤' 성적 결합을 재현하는 담론의 효과를 검토한다. 구술 전승 속 '첫날밤'이 젠더 규범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장면으로 의미화된 맥락을 짚어보는 일을 통해서 '첫날밤' 서사의 담론적 효과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한다. 결국, '첫날밤'에 관한 구술서사가 그 자체로 '첫날밤'이 담지하는 젠더 규범을 전달하는 담론으로 기능하고, 또 그 규범을 자연화하는 담론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다.

3.1. '첫날밤' 성적 결합의 젠더 규범과 지식 전승의 체계

본 항목에서는 '첫날밤' 성적 결합에 관한 젠더 규범과 그것이 민속과 구술서사로 이어지는 구술 전승의 맥락에서 지식으로서 전승되는 체계를 분석한다. 결혼과 '첫날밤'이 개인의 일이 아닌 공동체적 의례로서, 의례에 참가한 이들의 사회적 지위 변화의 길목에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첫날밤'의 성적 결합 역시 근대적 의미에서의 섹스와 같이 완전히 개인적이거나 내밀한 것이기보다는 이미 표준화된 절차적 규범에 따를 것이 중시되는 의례로 이해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첫날밤'이 가진 상징적·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첫날밤'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젠더·섹슈얼리티의 통제 장치로 기능해왔음을 알 수 있다.

3.1.1. 성적 결합에 관한 젠더 규범

① 젠더 정체성의 증명 : 젠더화된 어른 되기

혼인을 무사히 치러냈다는 것은 그가 이원적 젠더의 분류 기준에 들어맞는 어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나 마찬가지이다. '첫날밤'의 젠더 규범 담론은 비단 '첫날밤'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보다는 결혼한 '여성'과 '남성', '부부'에게 주어지는 젠더 규범을 의례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첫날밤'은 '남성'과 '여성'이 각자 성별화된 '어른'으로서 지배적 젠더 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사건

이며, 그 이후 그의 규범적 젠더 수행을 증명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기능한다.[6]

② 섹슈얼리티의 각성 : '이성애 부부'의 완성

혼인 '첫날밤'은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맞는 '성적 결합'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런 점에서, '어른 되기'라는 혼인의례의 기능 중에서도 '첫날밤' 단계는 '남성'과 '여성'이 '섹스 하는(혹은 해야만 하는)' 어른의 삶으로 진입하는 길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첫날밤'의 상징적인 첫 '성적 결합'을 통해, 아이였던 이전과는 달리 성인으로서 섹슈얼리티의 대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때 이들에게 유일하게 승인된 '정상적' 섹슈얼리티의 형태는 물론 이성애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혼인 관계 내에서 생식을 전제로 한 질내 삽입 섹스이다. 게일 루빈이 설명하듯 이성애적, 결혼제도 아래의, 일대일 관계로 이루어지는, 비상업적인 섹스로서 '남녀' 외의 다른 역할의 개입이 없이 출산을 전제로 한 성적 결합이 '섹슈얼리티의 위계'에서 최상위에 놓인 것으로서 '정상'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다.[7]

---

6) 관련해서 푸코는 성이 공공의 규제 대상이 되는 장치로 '혼인관계의 장치'를 들며 이것이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규정된 것과 비합법적인 것을 확정하는 규범 체계를 중심으로 구축"(123쪽)된다고 말한다. 나아가 '혼인'이라는 제도는 "사회체의 항상성(恒常性)에 따라 조직될 것이고, 이 장치의 기능은 사회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데, 이로부터 이 장치와 법의 특권적 관계가 유래하고, 또한 이로 인해 혼인관계의 장치에서는 "생식"이 가장 중요하다"(124쪽)고 지적한다. 곧 권력에 의한 성의 담론화는 인구 문제와 뗄 수 없는 것으로, 혼인 제도의 약화로 '혼인관계의 장치'가 '성생활의 장치'로 이어진 지금에도 여전히 인구의 통제가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3, 나남, 2010 참조.)

7) 게일 루빈은 섹슈얼리티에 위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에 존재하는 성 가치 체계에 따르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래서 위계의 꼭대기에 놓이는 섹슈얼리티는 이성애, 결혼 제도 내부, 일대일 관계, 비상업적인 섹스로 출산해야 한다. 섹스하는 이들은 같은 세대에 속해야 하되, 섹스는 집에서 해야 한다. 포르노, 페티시, 성인 용품 등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남녀'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역할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 (게일 루빈,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윤 역, 「성을 사유하기: 급진적 섹슈얼리티 정치 이론을 위한 노트」, 『일탈』, 현실문화, 2015.)

③ 성적 결합에서의 젠더 역할 : 수동과 능동, 순결과 정복

혼인 '첫날밤'의 성적 결합은 이성애적 규범에 알맞게 치러져야 할 뿐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각각 적절한 젠더 역할을 수행해야만 완성된다. 이때 신부와 신랑이 수행해야 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내용은 극단의 수동성과 능동성, 순결함과 그에 대한 정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피 묻은 이불'이 '첫날밤' 완수의 대표적인 표상이라는 점이 증명하듯, '첫날밤'이 첫 성적 결합이라는 점은 달리 말해 이때의 질내 삽입 섹스가 아직 누구도 닿은 적 없는 '처녀막'을 신랑이 최초로 파괴하는 의식임을 나타낸다.[8] 그런 점에서 '첫날밤'의 '처음'이라는 점은 신랑보다는 특히 신부에게 적용되는 요소이다. 신랑의 '숫총각' 여부는 거의 질문되지 않는 반면에, 신부의 '처녀성'은 '첫날밤'의 완성에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부에게는 실제로 '순결'할 것과 함께 그에 부합하게 '순순한' 태도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 그러지 않으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의 '순결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신랑에게는 그가 실제로 처음이든 아니든 '첫날밤'의 성적 결합을 능숙히 주도할 것이 요구된다. 그 핵심은 '순결한' 신부를 오로지 자신이 독점적으로 소유했다는 '정복'을 표시하는 것인데,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 결합이(특히 '여성'에게 그것이 처음인 경우에) 흔히 '누구를 가졌다'거나 '누구를 범했다'는 식으로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거나 경계를 침범했다는 언술로 표현되곤 하는 것은 성적 결합의 이와 같은 측면을 반영한다.

3.1.2. 성적 결합에 관한 지식의 구술 전승

'첫날밤'의 젠더 규범은 일상적 지식의 형태로 전승되어왔다. 민속과

8) 『젠더의 역사』에는 혼인 의례의 절차로 결혼 첫날 아침에 신랑이 피가 묻은 이불보를 사람들 앞에서 흔드는 의식을 행하는 사회의 경우가 소개되어 있다. (메리 E. 위스너-행크스, 노영순 역, 『젠더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6, 136쪽.)

속담, 구술 서사 등 구술 전승 전통에 있는 텍스트들로부터 '첫날밤' 젠더 규범에 관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텍스트는 모두 향유자들에게 구술을 매개로 지식을 전승하는 매체로서 '첫날밤'의 성적 결합에 관한 지식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한다.

① 젠더 정체성의 증명 : 젠더화된 어른 되기

혼례는 예로부터 한국 사회의 일원이 일생동안 겪는 대표적 의례인 관혼상제 가운데 하나로서, 민속학에서 '일생의례'[9]라고도 불리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소재이다. 그 중에서도 '첫날밤' 의례, 즉 '신방' 의례는 혼인 의례의 전 과정 가운데에서도 중요하게 치러지는 의례이다.[10] '첫날밤'의 실행과 완수는 신랑 신부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며, 공동체가 그 성패에 주목하는 전 사회의 입사의례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민속과 속담, 구술 서사에서는 '첫날밤' 절차의 중요성과 성공에 대한 강박이 나타나는데, 이는 혼인과 '첫날밤'이 '어른 되기'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② 섹슈얼리티의 각성 : '이성애 부부'의 완성

속담에서는 '첫날밤'이 마치 본능에 내재된 이성애 섹슈얼리티가 각성

9) '일생의례'는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시기마다 치르는 의례'로, 관혼상제는 물론이고 출산의례, 수연례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DB '일생의례(人生礼儀)' 항목 참조.)

10)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혼례(婚禮)' 항목에 따르면, 혼례는 좁게는 혼례식만을, 넓게는 혼담이 오가며 이루어지는 혼인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고려말 주자의 『가례』를 수용한 이래로 국가적으로 유교적 혼인 의례의 보급에 힘썼으나 그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재래의 혼례문화와 충돌하는 까닭에 보편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사실상 실질적인 '전통혼례'의 절차는 의혼·대례(大禮)·후례(後禮)로 나뉘는데, '대례'가 혼례의 핵심이자 좁은 의미의 혼례식을 일컫는다면 의혼은 그 이전, 후례는 그 이후의 절차를 일컫는 것이다. '첫날밤' 의례는 초행·전안지례·교배지례·합근지례·신방·동상례로 이루어지는 '대례'의 전체 과정 중 '신방' 의례에 해당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DB '혼례(婚禮)' 항목 참조.)

하는 장면으로서, '남녀'의 지당한 결합과 같이 그려지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혼인과 첫날밤 성적 결합의 목표가 자연히 출산, 그것도 아들 낳기임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속담, '첫날밤'의 성적 결합이 주는 성적 쾌락을 표현하는 속담 등은 혼인을 통한 '남녀'의 합일을 지극히 당연한 것과 같이 자연화할 뿐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이성애적 성적 결합과 그를 통한 인구 재생산까지를 인간 본능과 자연 질서에 내재된 것과 같이 선언한다.

③ 성적 결합에서의 젠더 역할 : 수동과 능동, 순결과 정복

'첫날밤' 신방의 신랑과 신부에게는 각각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위의 규범들이 구분되어 주어진다. 신랑에게는 그가 직접 신부의 족두리와 옷을 벗겨 주어야 한다는 것[11], 그리고 그동안 신부는 가만히 앉아서 묻는 말에나 겨우 대답할지언정 먼저 입을 떼거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12]이다. 이와 같은 규범은 의례 참가자들의 몸가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첫날밤 신방의 의례가 가진 권위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는 곧 그들의 젠더 역할 수행에 대한 통제와 제한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 신랑과 신부가 각각 '남성'과 '여성'의 젠더 역할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의 역할에 복무하게끔 배치되고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것이 '첫날밤' 의례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13]

---

1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 민속의 세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146쪽; 김광순, 『한국구비문학』, 국학자료원, 2001, 526쪽; 오출세, 『한국민간신앙과 문학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99쪽.

1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앞의 책, 526쪽.

13) 특히 민속 절차에서는 신부에게 주어지는 '수동성'의 규정이 강조된다.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행을 갈 때나 '첫날밤'의 신방 등에서 소변 소리가 나지 않게 따로 조치한 요강을 준비하는 풍습이 존재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신부에게 요구되는 '수동성'의 규범이 무척 엄격하고 강력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방의 요강 : 결혼한 신방에 들여놓는 간이 변소 역할을 하는 요강. 이 신부의 요강 속에는 쌀겨나 솔·모래를 살짝 깔아둔다. 갓 시집온 신부는 "첫날밤에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민간 속신이 있다. 그런 신부가 소변을 방안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 소리가 크면 부끄러울 것이므로 요강 속에 솜·모래·쌀겨를 넣고 물을 자작자작

3.2. ‘첫날밤’ 성적 결합 관련 구술 서사의 담론 전략

본 항목에서는 ‘첫날밤’ 성적 결합에 관한 구술 서사에서 나타나는 주된 담론 전략을 검토한다. ‘첫날밤’의 실패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고, 규범적 젠더 수행에 실패한 인물의 성적 무지를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삼고, ‘첫날밤’을 야한 농담의 소재로 삼아 성적 행위와 쾌락을 신화화하는 세 가지 전략은 구술 담론에서 ‘첫날밤’이 재현되는 주된 경향을 보여준다.

3.2.1. 실패의 불안 자극

‘첫날밤’ 성적 결합이 문제없이 완수되어야 한다는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첫날밤’이 재현되는 주된 양상 가운데 하나이다. ‘첫날밤’과 관련해서는 유독 실패에 관한 이야기나 실패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이야기가 많고, 따라서 실패에 관한 불안이 확대되고 과장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는 혼례 절차 가운데 하나로서 ‘첫날밤’이, 특히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성적 결합 절차가 한 번에 무리 없이 완수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그러나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분위기 아래 치러진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는 ‘첫날밤’을 치르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은 세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날밤’에 관한 구술에서 실패에 대한 불안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담론 전략은 ‘첫날밤’의 실패를 커다란 위반으로 의미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첫날밤’이 누군가의 젠더·섹슈얼리티의 ‘정상성’을 증명하는 장면이라는 점과 맞물려, ‘첫날밤’ 당사자인 개인에게 ‘첫날밤’의 실패가 ‘정상성’의 결함이자 오점으로 남으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실패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을 통해, ‘첫날밤’을 치러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의문

하게 미리 부어 둔다. 이런 것은 신부가 가마를 타고 갈 때나 신행갈 때도 소리나지 않게 위와 같이 조치한 요강을 가마 안에 넣고 간다.”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전2권), 민족문화사, 1991, 935쪽. ‘신방의 요강’ 항목.)

은 차단되고 개인들로 하여금 규범에 더욱 강하게 인정투쟁하게끔 하는 것이다.

3.2.2. 성적 무지에 대한 조롱

'첫날밤'의 성적 결합에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인물들을 조롱하는 담론들에서 조롱의 초점은 인물들이 성적 결합에 무지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것에 놓이는데, 웃음의 포인트가 초심자의 무지함이라는 사실은 그들에 대한 웃음이 곧 '나는 그들처럼 무지하지 않다'는 공동의 이해 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웃음의 효과는 웃는 '우리'와 웃지 못하는 '우리 아닌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짓고, 그 경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롱거리가 되는 인물들과는 달리 '첫날밤'을 경험했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들을 '우리'라는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자, 서툰 행위자들로부터 거리를 취하여 '첫날밤'의 실수를 '남의 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이야기의 연행은 연행에 참가하는 이들에게 이야기 속 인물들을 비웃을 수 있는 공통의 이해가 있으리라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거꾸로 그러한 믿음을 공유하여 '우리'에 포함될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3.2.3. 성적 행위와 쾌락에 관한 신화

'첫날밤' 성적 결합을 성적 농담의 소재로 삼아 성적 행위와 쾌락을 신화화하는 것 역시 '첫날밤' 성적 결합에 관한 구술 서사의 주된 담론 전략이다. 이때 성적 농담의 소재가 되는 누군가의 '첫날밤' 경험은 관습적으로 마치 본능에 새겨진 이성애 섹슈얼리티가 각성하는 장면이자 당연히 성적 쾌락이 뒤따르는 경험과 같이 그려진다. 이는 '첫날밤'이 그 이후에 이어질 (성관계와 동의어로서) 부부관계의 첫 번째 경험이라는 의식에

근거해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첫날밤' 이후 부부간 성관계에 대한 담론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 당연한 듯 가정되는 성적 쾌락의 존재는 성적 행위와 그에 뒤따르는 성적 쾌락에 대한 신화에 기반을 둔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남성' 섹슈얼리티와 '페니스'에 대한 신화화된 관념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이성애 섹스 상황에서 성적 행위를 주도하는 것은 페니스를 지닌 '남성'이며, 성적 행위는 곧 페니스를 질에 삽입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행 태도인데, 사실상 해당 이야기를 '야한'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이야기의 내용이기 보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4. '첫날밤' 젠더 규범의 효과와 균열

본 장에서는 보수적인 측면과 전복적인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텍스트로서 구술 서사를 조망한다. '첫날밤'에 관한 젠더 규범 담론으로부터는 그 규범의 한계가 폭로되는 지점들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규범의 균열 징후가 발견되고 그 결과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담론의 존재 가능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4.1. '첫날밤' 젠더 규범의 수행적 효과

4.1.1. 배제를 통한 규범의 구성

'첫날밤'에 관한 구술 서사에서, 젠더 규범은 그 명확한 내용을 선언하여 행위자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달되기보다는 '규범 아닌 것'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규범이 이미 '자연'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태도로 그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거꾸로, 젠더 규범의 비자연적 속성을 짐작하게 한다.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서 배제되는 것은 어떤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 행동을 한 사람 자체가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첫날밤에 신부 살가죽 벗겨 죽인 신랑' 이야기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첫날밤' 완수에 실패한 결과로 신부는 죽어 다시 등장하지 않으며, 신랑 역시 그 '첫날밤' 이후의 운명에 대한 묘사 없이 퇴장한다. '그 뒤로 첫날밤을 엿보게 되었다'는 결말은, 이 이야기의 서사가 이야기의 주요 인물이었던 신랑과 신부의 운명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첫날밤'이라는 보편적 사건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요한 것은 '첫날밤'의 완수이지 인물들 개인의 삶이 아니며, 따라서 행동 뿐 아니라 그 행동을 한 인물도 함께 배제되는 것이다.

4.1.2. 규범 제시의 회피 전략과 자발적 순응

'첫날밤' 구술 담론의 젠더 규범이 가진 또 하나의 효과는,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태도만을 강박적으로 내면화하게 한다는 점이다. 행위자들은 끊임없이 규범에 부합할 것을 요구받지만 정작 어떤 것이 규범적인 행위인지는 각자가 '눈치껏' 알아채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통해 규범의 '자연'으로서의 위치는 더욱 강화된다. 곧, 규범을 직접 제시하는 것을 회피하는 담론 전략을 통해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에 순응하게끔 하는 것이다.

4.2. '첫날밤' 젠더 규범의 균열

'첫날밤' 구술 서사에 드러나는 모순점들은 그것이 기반을 둔 젠더 규범의 한계를 시사하고 균열을 드러낸다. 이처럼 규범 담론이 흠결 없이 매끈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쉽게 발견되는 허점들을 포함한 채 담론장

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담론들은 규범적 가치를 천명하고 강화한다는 표면적·1차적 효과와 무관하게 도리어 그것의 자연화된 위치를 의심하게끔 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구술 서사의 연행 현장이 지닌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측면과도 맞닿아있는데, 구술 담론이 고정적인 형태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4.2.1. ‘과잉’ 수행의 아이러니

‘첫날밤’의 젠더 규범에 드러난 균열의 징후는 젠더 규범의 ‘실패’ 원인이 그것의 ‘과잉’된 수행이라는 사실로부터 드러난다. 말하자면 구술 서사 속 인물들이 ‘첫날밤’ 과업의 완수에 실패한 것은 그들이 주어진 젠더 규범을 ‘지나치게 잘’ 수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규범적’ 수행에 ‘과잉’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순적이거니와, 그로 인해 실패에 이른다는 사실 역시 젠더 규범의 자연화된 위치와 어긋나는 균열점을 시사한다.

4.2.2. 폭로된 한계의 회피 및 규범과 탈규범의 충돌

‘첫날밤’에 관한 구술 담론들은 대체로 규범적 가치에 기반해있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등 기본적으로 규범의 틀에 부합하는 담론 전략을 취한다. 그런데 서사 곳곳에서는 전체적인 규범적 틀거리에 부합하지 않는 탈규범적인 지점들이 종종 발견되며, 그렇게 폭로된 규범적 한계는 적극적으로 회피되거나 규범과 충돌점을 만들어낸다. 젠더 규범 담론에서 폭로된 한계가 그에 대한 회피를 수반하는 것은 규범적 한계가 규범의 불완전성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범이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만으로 지배 질서에 커다란 위반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4]

5. 결론

'첫날밤' 성적 결합에 관한 구술 담론들은 향유자들에게 '첫날밤'의 '정상적' 젠더·섹슈얼리티 규범을 전달하여 그에 들어맞는 젠더 주체를 생산하는 젠더 규범 담론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첫날밤' 담론의 성격이 혼인의례의 절차 가운데 하나로 '첫날밤'이 존재했던 과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제도 안에서의 '섹스'에 대한 규제적 담론들은, 모든 종류의 섹스에 대한 사회적 이해나 관념과도 필연적으로 연관된다. 결혼 제도 안에서의 섹스만이 안전한 '정상적' 섹스의 위치에 놓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섹스'의 형태들은 섹슈얼리티의 위계에서 하위에 놓이는 것이다.[15]

그러므로 본고에서 살펴본 젠더 규범 담론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규제하는 유효한 틀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젠더 규범 담론이 과거에 박제되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고루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모습을 달리 하고 있을 뿐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첫날밤'의 젠더 규범은 그저 혼인 의례에서의 '첫날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섹스에 대한 규범 담론과 맞닿아있다. '첫날밤'에 관한 담론이 보편적인 젠더 담론으로 기능하는 사회에서 '첫날밤'의 젠더 규범은 허용 가능한 섹스의 상상력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첫날밤'에 관한 구술 서사에 대한 연구는 해당 작품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읽어내고자 하는 시도이면서, '첫날밤'이라는 상징적인 장면을 경유하여 보편적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상상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담론화되어왔는지를 짚어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

14) 관련해서 루인은 "이 시대의 경합하는 여러 규범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규범의 인식론적 한계를 폭로하지 않는 선에서 규범의 질서를 실천하는 것이다. 한계를 폭로하고 규범이 인식할 수 없는 무능력을 폭로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위험한 '위반'이다. 지배규범이야말로 언어가 없고 지배규범의 유일한 언어는 폭력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실천은 규범의 근간을 흔든다."라고 설명한다. (루인, 「규범이라는 젠더, 젠더라는 불안」, 『여/성이론』 제23권, 도서출판여이연, 2010, 72쪽.)

15) 게일 루빈, 앞의 책 참조.

참고문헌

1. 단행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 민속의 세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146쪽.

김광순, 『한국구비문학』, 국학자료원, 2001, 526쪽.

오출세, 『한국민간신앙과 문학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99쪽.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전2권), 민족문화사, 1991, 935쪽.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나남, 2010, 123-124쪽.

메리 E. 위스너-행크스, 노영순 역, 『젠더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6, 136쪽.

2. 논문

게일 루빈,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윤 역, 「성을 사유하기:급진적 섹슈얼리티 정치 이론을 위한 노트」, 『일탈』, 현실문화, 2015, 279-356쪽.

김영희·김시연, 「'첫날밤'의 의례적 상징성과 '남성성' 승인의 불안 -「첫날밤에 간부(姦夫) 잡은 남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66권, 비교민속학회, 2018, 7-69쪽.

루 인, 「규범이라는 젠더, 젠더라는 불안」, 『여/성이론』 제23권, 도서출판여이연, 2010, 48-75쪽.

박부진, 「첫날밤과 신혼여행의 문화분석」, 『인문과학연구논총』 제25권,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209-225쪽.

3.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한국구비문학대계 디지털 아카이브(http://gubi.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http://folkency.nfm.go.kr/kr/)